

청소년기 애착에 관한 질적 분석 연구

이 시 읍[†] 이 재 찬

홍익대학교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애착 관련 경험의 양상을 알아보고, 이들의 애착 관련 내적 실행 모델에 따라 하위 집단으로 분류하여 애착 관련 경험의 특성을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 24명의 사례를 5명의 평정자들로 구성된 합의팀의 논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질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들의 애착 관련 내적 실행 모델은 부모 표상과 자기 표상의 조합에 따라 자기와 부모에 대해 통합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는 안정 애착 집단, 자기와 부모에 대해 부정적 혹은 이상적 표상을 가지고 있는 불안정 애착 집단, 그리고 자기와 부모 표상이 혼재되어 있는 혼합 애착 집단의 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안정 애착 집단은 부모를 안정 기반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반면, 혼합 애착 집단에서는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불안정 애착 집단은 부모(특히 어머니)와의 관계 단절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정 애착 집단은 부모와의 갈등에서 부모와 자신의 욕구를 잘 조율하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양한 행동 전략을 통해 안정감을 획득하고 있었다. 불안정 애착 집단은 부모와의 갈등을 회피하고, 피상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안정감을 획득하지 못하였다. 혼합 애착 집단은 부모와의 갈등에서 자신과 부모의 욕구 간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타인과 소극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상담관계 형성과 상담적 개입을 하는데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청소년, 애착, 내적실행모델, 합의에 의한 질적 분석법

이시은은 홍익대학교 강사임, 이재창은 홍익대학교 교육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이 시 은, (130-861)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 2동 153번지 벽산 아파트 102-404

전화 : 011-419-4222 E-mail : hiverai@hanmail.net

애착(attachment)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관계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친밀한 관계가 전제로 이루어지는 상담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지금까지 애착 이론은 상담자가 내담자와 어떻게 적당한 '대인관계의 거리(interpersonal stance)'를 유지하며, 자율성과 정서적 지지를 균형적으로 제공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임상적 통찰과 사례를 제공해왔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담자의 문제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치료적 개입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Ainsworth, Blehar, & Waters, 1978; Bowlby, 1958; Dolan, Arnkoff, & Glass, 1993; Farber, Lippert, & Nevas, 1995; Pistole, 1999).

애착에 대한 초기 연구자들은 애착의 안정성과 관련된 양육자-유아의 관계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영아기를 지난 시기의 애착을 측정하는 방법론의 부족으로 애착 연구에 제한점을 초래했다. 최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영아기를 넘어 유아, 아동 및 성인의 애착을 측정하는 방법의 발달과 타당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장미자, 1998). 더욱이 Bowlby의 내적 실행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의 출현은 성인 애착 연구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내적 실행모델이란 각 개인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 갖는 내적 표상으로서, 생후 1년 동안 양육자와의 경험을 통해 그 기초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형성된 내적 실행 모델을 바탕으로 개개인은 사건을 지각하고 해석하며 미래를 예상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계획하게 된다(Bowlby, 1973). 즉, Bowlby는 유아기 동안 형성된 애착 관계로부터 형성된 내적 실행 모델이 청년기 이후의 만족스러운 인간 관계 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애착에 관한 연구에서 내적 실행 모델이 연구의 주된 초점을 이루면서, 모델의 안정성에 대한 많

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Ainsworth는 애착 대상에 대한 신뢰감은 아동이 의지의 통제를 받기 이전인 감각 운동기에 형성된 것이어서 내적 실행 모델은 변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Bretherton은 내적 실행 모델이 일단 구성되면, 그 틀로 세상을 해석하기 때문에 초기 모델은 계속 강화된다고 하였다(장미자, 1998). 반면, 내적 실행 모델은 초기 양육 행동과의 인과 관계를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으며, 중기 아동기나 청소년기 동안 내적 실행 모델이 어떻게 유지 발달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Brown & Wright, 2001).

또한,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가 이루어지면서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급속도로 확대되며 또래 집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로 인해 부모 관계 뿐 아니라 또래 관계에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Collins와 Read(1994)는 내적 실행 모델이 초기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만을 반영한다는 가정은 비합리적이라며, 내적 실행모델은 중요한 부모 외 애착 인물과의 관계의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내적 실행 모델은 자기와 타인 지각 뿐 아니라 안정성을 위협하는 두려움에 반응하는 행동 전략이 포함된 관계적 도식의 역할을 한다(Lopez & Brennan, 2000). 특히, 최근 청소년의 애착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견해 차이와 관련된 청소년-부모의 상호작용에서의 관계성 유지와 자율성 확득의 성공적인 균형은 청소년기의 애착 안정성의 표명임을 밝히고 있다(Allen & Hauser, 1996; Allen, Kuperminc, & Moore, 1997; Becker-Stoll & Fremmer-Bombik, 1997). 즉,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대인관계 양상, 스트레스 상황, 그리고 부모와의 갈등 상황에서의 청소년들의 반응 및 행동에는 내적 실행 모델이 반영된다.

따라서 청소년기 애착에 관한 연구는 매우 필요

하며,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상담 관계 형성과 효과적인 상담의 개입을 위해 청소년기의 내적 실행 모델을 평가하고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청소년기는 애착 관계에 변화가 생길 뿐 아니라 내적 실행 모델이 수정, 재통합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서 상담적 개입을 하기에 좋은 시기이다(Adams & Gullotta, 1989; Feeney & Noller, 1996; Sperling & Lyons, 199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애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아기와 성인기에 관한 것이었다. 청소년기 애착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자기 보고식 질문지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자기 보고식 질문지는 인지 능력이 발달된 청소년들의 관계 속 자기에 대한 의식적인 평가가 반영된다는 이유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자기 보고식 질문지는 애착과 같은 내면적 특성을 드러내는 주제를 평가할 때 자신을 냉여하거나 사회적 바람직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청소년기 애착에 관한 도구들은 대부분 부모에 대한 애착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며, 부모에 대한 애착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는 없는 실정이다. 청소년기 애착에 관한 연구자들은 청소년기 애착 유형을 측정하는데 성인 애착 인터뷰(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AAI는 면접을 하고 평정을 하기 위해 체계적인 훈련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아직 표준화된 국내용 면접 절차 및 평정 척도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단계이다. 때문에 성인 애착에 대한 연구자들은 AAI의 대안적 도구로 간략한 자기 보고식 도구인 Bartholomew와 Horowitz의 4범주 척도를 사용하여 지식의 범위를 넓혀왔고, 청소년기 애착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유용할 것이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도구는 개개인의 불안정 애착 유형을 판별하는데

충분히 섬세치 않으며, 발달적 관점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을 고려할 때 자기와 타인에 대한 견해는 독립적일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Vivona, 2000).

이러한 애착 유형의 측정은 내적 실행 모델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애착 관련 정서, 인지, 및 행동을 내적 실행 모델의 반영으로 보는지에 따라 그 측정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애착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자기 보고식 도구로는 한계점이 있으며, 청소년들의 애착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이 반영된 내적 실행 모델을 평가하고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분석 방법을 통해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애착 관련 경험을 알아보고, 이들의 내적 실행 모델에 따라 하위 집단으로 분류하여 애착 관련 경험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청소년들의 애착에 관한 내적 실행 모델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2. 청소년들의 애착에 관한 내적 실행 모델의 차이는 아동기와 청소년기 애착 인물과의 관계의 차이를 반영하는가?
3. 청소년들의 애착에 관한 내적 실행 모델에 따라 부모와의 갈등, 대인관계,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방 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애착에 대한 내적 경험을 자료로 얻기 위해 양적 접근보다는 질적 접

근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어, Hill, Thompson, & Williams(1997)이 개발한 합의에 의한 질적 연구법(Consensual Quality Research: CQR)을 사용하였다. CQR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말에 의존하며, 소수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전체 사례의 맥락을 기초로 하며, 귀납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본 연구의 대상,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12개교의 고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기는 애착 관계에 변화가 생길 뿐 아니라 내적 실행 모델이 수정, 재통합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시기이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는 자아 정체감과 형식적 조작사고의 발달이 정점을 이루는 시기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본 연구의 방법인 CQR은 최소 8명에서 15명 사이의 동질적 특성을 지닌 표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학년별·남녀별 하위집단의 표집 인원을 이러한 기준에 맞도록 고려하여 추천에 의한 임의 표집을 하였다.

피면접자 모집은 수도권 지역의 고등학교 교사와 연구자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내담자 조건을 설명한 뒤, 면접이 가능한 고등학생 30명을 추천 받아 이루어졌다. 추천 받은 30명의 고등학생을 면접한 후,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거나 무성의하게 답변한 6개의 사례를 제외시킨 후 최종적으로 24명의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

면접용 질문지

애착에 관한 문헌과 CQR 관련 문헌들을 개관한 후, 연구자가 반구조화된 면접용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아동기 부모 관계, 아동기 부모 외 애착 인물, 아동기 이후 부모와의 관계 변화, 현재 부모와의 관계, 현재 주된 애착 인물, 자신에 대한 지각, 부모와의 갈등,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면접

피면접자 면접은 연구자가 직접 하였으며, 면접은 연구자가 피면접자의 가정 혹은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피면접자가 본교 학생 상담 센터에 와서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피면접자에게는 면접 내용이 녹음되어 요약될 것이며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밝히고 동의를 얻었으며, 면접 시간은 약 1시간 1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됐다.

자료 준비

면접 테입을 풀어 측어록으로 만들었다. 면접 테입 중 22개의 테입은 면접자가 직접 풀어 정리하였고, 2개의 테입은 연구팀 외의 사람에게 의뢰하여 측어록으로 만들었으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면접자인 연구자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본 연구자를 포함한 5명, 즉 1명의 감수자와 4명의 합의팀을 구성하여 이루어졌다. 감수자는 현재 상담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며 상담 심리 전문가이다. 합의팀의 3명은 박사 과정생이며 1급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합의팀의 마지막 구성원인 연구자는 대학교 학생 상담 센터에서 요일제 근무를 하는 상담원으로 박사 과정생이다. 이렇게 구성된 5명의 합의팀에 의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영역 부호화

각 사례는 면접용 질문을 기초로 같은 주제별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합의팀은 24개의 사례 중 우선 각자 2개의 사례를 읽고 영역과 범주를 만든 다음, 전원이 모여 토의를 거쳐 영역과 범주를 결정하였다. 나머지 사례 역시 각자 영역과 범주를 만든 후, 합의팀 전원이 모여 토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사례는 6개의 영역과 17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요약 반응 구성(영역 내의 핵심 내용 요약)

모든 사례를 영역별로 정리한 후, 각 영역의 내용을 요약하여 요약 반응을 구성하였다. 요약을 할 때는 요약자의 추론을 배제하고 내담자의 말에 충실하였으며 사례의 전체 맥락을 염두에 두었다.

영역과 요약 반응 감수

모든 사례의 영역과 요약 반응을 구성한 후, 감수자의 감수를 받았다. 합의팀은 감수자의 지적에 대해 토의하여, 감수자의 의견에 따라 영역이나 요약 반응을 수정하거나 합의팀의 결정을 따랐다.

교차 분석(cross-analysis)

각 영역에 대한 중심 개념들을 범주화하기 위해 합의팀의 논의 과정이 진행되었다. 각 영역에서 사례 간 유사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Elliott 등 (1989)의 규정에 따라 모든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인(general) 범주, 50% 이상 나타나는 것은 전형적인(typical) 범주, 50% 미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변동적인(variant) 범주로 구분하였다. 단지 한 두 사례에만 적용되는 범주는 예외적인 사례로 보고 제외시켰는데, 본 연구에서는 10사례 이상인 영역에서는 2사례 이하, 10사례 미만인 영역에서는 1사례인 경우에 제외하였다.

교차분석 감수

교차 분석 자료에 대해 감수자의 감수를 받았다. 감수자는 각 영역의 요약 반응들을 읽고 범주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요약 반응들이 적절하게 범주화되었는지 검토하고 지적하였다. 합의팀은 감수자가 지적한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여, 합의를 통해 수정 · 보완하였다.

결과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총 6개의 영역과 17개의 범주 및 그에 따른 구성요소들로 분류되었다. 합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 6개의 영역과 17개의 범주는 표 1과 같다.

청소년기 애착 관련 내적 실행 모델의 유형화

애착 관련 경험의 6개의 영역 중 ‘부모 표상과 자기 표상’ 영역은 과거 애착 인물과의 경험과 현재 애착 관련 정서, 인지, 그리고 행동을 매개해주는 내적 실행 모델의 기능을 할 것이라 가정하고, ‘부모 표상과 자기 표상’을 중심으로 자료를 검토하였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소년들의 자기 표상은 부모 표상과 독립적이지 않고 부모에 대한 지각과 연관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부모에 대한 이해 및 수용’은 ‘통합적인 자기 표상’과 관련되며, ‘부정적인 부모 표상’ 혹은 ‘이상화된 부모 표상’은 ‘부정적인 자기 표상’과 ‘이상화된 자기 표상’과 관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하위 집단으로 분류하여, 애착 관련 내적 실행 모델을 유형화하였다.

첫 번째 하위 집단에는 ‘부모 표상’ 중 ‘부모에 대한 이해 및 수용’에 해당되면서, ‘자기 표상’ 중

표 1. 청소년의 애착 관련 경험의 영역과 범주

영 역	범 주
① 아동기 애착 인물과의 관계	1. 어머니와의 관계 2. 아버지와의 관계 3. 부모 외 애착 인물 4. 부모 외 애착 인물과의 관계
② 청소년기 애착 인물과의 관계	1. 어머니와의 관계 2. 아버지와의 관계 3. 주된 애착 인물 4. 주된 애착 인물과의 관계
③ 부모 표상과 자기 표상	1. 부모 표상 2. 자기 표상 3. 부모와의 애착 경험의 영향
④ 부모와의 갈등	1. 갈등 해결 방식 2. 갈등 해결 후 자기와 부모에 대한 평가
⑤ 대인 관계	1. 긍정적 대인관계 2. 부정적 대인관계
⑥ 스트레스	1. 행동 전략 2. 행동 전략에 따른 결과

‘통합적인 자기 표상’에 해당되는 총 6사례가 포함된다. 안정 애착 유형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안정 애착’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하위 집단에는 ‘부모 표상’ 중 ‘부정적 부모 표상’ 혹은 ‘이상화된 부모 표상’에 해당되면서, ‘자기 표상’ 중 ‘부정적 자기 표상’ 혹은 ‘이상화된 자기 표상’에 해당되는 총 10사례가 포함된다. 이 집단의 특성은 부모와 자신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불안정 애착’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하위 집단은 첫 번째 하위 집단과 두 번째 하위 집단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8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다. 자기 표상이 부모 표상과 관련

되지 않고, 자기 표상과 부모 표상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혼합 애착’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처럼 애착 관련 내적 실행모델의 유형화를 위한 분류 기준은 그림 1과 같다.

내적 실행 모델 유형별 전형적인 애착 관련 경험의 양상

애착 관련 내적 실행 모델 유형에 따른 아동기, 청소년기 애착 인물과의 관계와 부모와의 갈등·대인관계·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청소년들의 경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애

		자기 표상	
		‘통합적인 자기표상’	‘부정적인 자기 표상’ 혹은 ‘이상화된 자기 표상’
부모 표상	‘부모에 대한 이해 및 수용’	안정 애착	혼합 애착
	‘양가적인 부모 표상’	혼합 애착	혼합 애착
	‘부정적인 부모 표상’ 혹은 ‘이상화된 부모 표상’	혼합 애착	불안정 애착

그림 1. 애착 관련 내적 실행모델의 분류 기준

착 관련 내적 실행 모델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안정 애착 집단에는 6사례, 불안정 애착 집단에 10사례, 혼합 애착 집단에 8사례가 포함되어 사례수가 다소 작은 하위 집단도 있지만, 응답 빈도는 Elliot(1989)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였다.

내적 실행 모델 유형별 아동기, 청소년기 애착 인물과의 관계

세 가지의 하위 집단별 아동기 애착 인물과의 관계와 청소년기 애착 인물과의 관계에 대한 교차 분석 결과는 표 2-1, 2와 같고, 하위 집단별 아동기 애착 인물과의 관계와 청소년기 애착 인물과의 관계에서 전형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기 애착 인물과의 관계

안정 애착. 아동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접근 가능성’, ‘민감성’, ‘협의성’, 그리고 ‘과잉 통제 및 요구’가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 애착된 청소년들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항상 집에 계시면서 자신을 잘 챙겨주셨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어머니의 관심과 기대가 커서 조금만 잘못해도 애단을 치고 제재가

많았지만 애단을 치실 때에는 합당한 이유로 애단을 치셨으며 화가 나도 금방 풀어주셨다며, “혼내실 때 딱 혼내시구, 딱 풀어주실 때 딱 풀어주시구... 그냥 제가 딱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우선 물어봐 주셨어요.”(사례11), “엄마한테 맞고 나서 울고 있으면 엄마가 안아주시면서, 엄마도 속상하다며 달래주셨어요”(사례17) 라고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역할 전도’가 전형적인 구성 요소로 나타나 어머니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신경을 썼던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기 때 어머니의 상황과 입장에 대한 감정 이입적인 측면으로 해석되어진다. 예로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해주셨기 때문에, 엄마를 힘들게 한다는 건 전 정말 싫었던 것 같아요”(사례11), “엄마가 저를 약간 어른스럽게 보시고, 속상한 게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다하셨어요.”(사례18) 등의 진술을 들 수 있다.

반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부재 및 접근 불가능’과 ‘과잉 통제 및 요구’가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났다. 이 집단의 청소년들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쁘셨고, 사소한 일로도 무척 엄하게 혼을 내셨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바깥 일로 바쁘면서 자식에게 엄하게 대하는 아버지 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표 2-1. 내적 실행 모델별 아동기 애착 인물과의 관계에 대한 교차 분석 결과

영 역	법주별 구성요소	내적 실행 모델별 응답 유형		
		안정애착	불안정 애착	혼합 애착
아동기 애착 인물과의 관계	1. 어머니와의 관계			
	1) 긍정적인 관계			
	(1) 접근 가능성	전형적	변동적	전형적
	(2) 민감성	전형적	전형적	전형적
	(3) 합의성	전형적	·	변동적
	2) 부정적인 관계			
	(1) 부재 및 접근 불가능	·	전형적	변동적
	(2) 무관심 및 자녀의 욕구에 둔감	·	·	·
	(3) 과잉 통제 및 요구	전형적	·	전형적
	(4) 타인과의 편애 및 비교	·	변동적	·
	(5) 역할 전도	전형적	·	·
	(6) 과잉 보호	·	·	·
	(7) 부모의 자기 통제 결여	·	·	변동적
	2. 아버지와의 관계			
	1) 긍정적인 관계			
	(1) 접근 가능성	·	·	변동적
	(2) 민감성	·	변동적	변동적
	(3) 존재 자체로서 든든함	·	·	·
	(4) 허용성	·	·	·
	2) 부정적인 관계			
	(1) 부재 및 접근 불가능	일반적	전형적	전형적
	(2) 무관심 및 자녀의 욕구에 둔감	변동적	·	전형적
	(3) 과잉 통제 및 요구	전형적	전형적	전형적
	(4) 부모의 자기 통제 결여	·	변동적	·
	3. 부모 외 애착 인물			
	1) 조부모	·	·	·
	2) 기타 (이모, 아줌마)	·	·	·
	4. 부모 외 애착 인물과의 관계			
	1) 접근 가능성	·	·	·
	2) 민감성	·	·	·

주. 안정 애착: 부모 표상 중 ‘부모에 대한 이해 및 수용’과 자기 표상 중 ‘통합적인 자기 표상’에 동시에 포함되는 사례/ 불안정 애착: 부모 표상 중 ‘부정적 부모 표상’ 혹은 ‘이상화된 부모 표상’과 자기 표상 중 ‘부정적 자기 표상’과 ‘이상화된 자기 표상’에 동시에 포함되는 사례/ 혼합 애착: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사례

표 2-2. 내적 실행 모델별 청소년기 애착 인물과의 관계에 대한 교차 분석 결과

영 역	범주별 구성요소	내적 실행 모델별 응답 유형		
		안정 애착	불안정 애착	혼합 애착
청소년기 애착 인물과의 관계	1. 어머니와의 관계			
	1) 긍정적인 관계			
	(1) 관심 및 민감성	전형적	변동적	전형적
	(2) 대화 및 의사소통	변동적	·	변동적
	(3) 자녀의 성장을 인정	전형적	·	변동적
	(4) 자녀와의 갈등 후 상호 신뢰	전형적	·	·
	2) 부정적인 관계			
	(1) 부재 및 접근 불가능	변동적	변동적	변동적
	(2) 무관심 및 자녀의 욕구에 둔감	·	·	·
	(3) 의사소통 단절	·	전형적	변동적
애착 인물과의 관계	(4) 과잉 통제 및 요구	전형적	변동적	전형적
	(5) 역할 전도	변동적	·	·
	2. 아버지와의 관계			
	1) 긍정적인 관계			
	(1) 대화 및 의사소통	·	변동적	·
	(2) 자녀의 성장을 인정	변동적	변동적	·
	(3) 자녀의 근접성 추구	변동적	변동적	·
	2) 부정적인 관계			
	(1) 부재 및 접근 불가능	·	변동적	변동적
	(2) 무관심 및 자녀의 욕구에 둔감	·	·	·
애착 인물과의 관계	(3) 의사소통 단절	·	·	변동적
	(4) 과잉 통제 및 요구	변동적	·	변동적
	3. 주된 애착 인물			
	1) 가족	전형적	변동적	·
	2) 친구	·	전형적	전형적
	3) 주된 애착 인물의 부재	·	변동적	·
	4. 주된 애착 인물과의 관계			
	1) 접근 가능성	변동적	변동적	전형적
	2) 상호 의사 소통	·	·	변동적
	3) 이해 및 수용	변동적	전형적	전형적

불안정 애착. 아동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민감성’과 ‘부재 및 접근 불가능’이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났다. 이 집단의 청소년들은 다른 두 집단의 청소년들과 같이 아동기 때 어머니가 자신의 욕구를 잘 맞춰주셨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두 집단의 청소년들과 달리 어머니의 통제나 간섭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직업 혹은 상황으로 인해 같이 있을 수 없어서 혼자 외롭고 쓸쓸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아동기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예로는,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요. 엄마가 일 나가시면 바쁘시니까요. 집에 전화도 잘 못해 주시구... 그래서 엄마 일 하는데 전화 번호 알아내 가지구 막 전화했어요.”(사례9), “언니가 신체적이라기보다 정신적으로 좀 불안해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언니 보살펴 주시구요, 엄마가 교회 다니시느라구... 저는 주로 혼자 놀았던 것 같아요.”(사례19) 등을 들 수 있다.

아동기 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안정 애착 집단과 혼합 애착 집단과 마찬가지로 ‘부재 및 접근 불가능’과 ‘과잉 통제 및 요구’가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정 애착 집단에 비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하거나 아버지를 무섭고 불편한 존재로 회상하고 있었으며, “아빠랑 별로 만난 일이 없어서요. 별로 기억이 없어요.”(사례5). “옛날에는 아빠가 무서웠어요. 절 잡아먹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무서워서 가까이도 못 갔는데... 우리 아빠 원래 소리를 되게 크게 지르거든요. 어릴 때는 되게 자주 맞았어요.”(사례10)라고 진술하였다.

혼합 애착. 아동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접근 가능성’, ‘민감성’, ‘과잉 통제 및 요구’가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집단의 청소년들은 어머니가 항상 집에 계시면서 잘 챙겨

주셨지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시키는 게 많았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접근 가능성’, ‘민감성’ 그리고 ‘과잉 통제 및 요구’는 안정 애착 집단과 공통되게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났던 구성 요소였다. 그러나, 안정 애착 집단의 경우는 서로의 욕구를 맞춰가는 ‘합의성’이 나타난 반면, 혼합 애착 집단의 경우는 ‘합의성’이 나타나지 않고 부모-자녀의 관계 특질이 일방적인 특성을 띠고 있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두 집단의 경우처럼 ‘부재 및 접근 불가능’과 ‘과잉 통제 및 요구’가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두 집단과는 달리 아버지가 자신에게 무관심하거나 자신의 욕구에 둔감하다며, “아빠는 되게 묵묵하시고 말없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나 보다 했어요.”(사례8), “아빠는 저한테 말도 잘 안거셨구요. 좀 무뚝뚝하셨어요.”(사례14)라고 진술하였다.

청소년기 애착 인물과의 관계

안정 애착. 청소년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관심 및 민감성’, ‘과잉 통제 및 요구’, 그리고 ‘자녀의 성장을 인정’이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여전히 자신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지만, 지나치게 간섭과 요구를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와 함께 안정 애착된 청소년들은 어머니가 자신이 컸다는 것을 나름대로 인정해 주신다며, “확실히 좀 크니까 저한테 책임감도 기대하고 제 의견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사례6), “저를 믿어주시고 집에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 해주세요.”(사례11),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저를 많이 믿고 안 때리세요.”(사례17)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밖에 ‘자녀와의 갈등 후 상호 신뢰’가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나, 안정 애

착 집단의 청소년들은 사춘기 때 어머니와 갈등이 심했지만 오히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전형적인 구성 요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안정 애착된 청소년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에는 바쁘고 엄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는 그런 아버지의 상황과 성격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아버지와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지만, 그런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지는 않았다.

주된 애착 인물로는 ‘가족(대부분 부모)’이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났으며, 주된 애착 인물과의 관계로는 ‘정서적 지지’와 ‘혈연으로서 신뢰와 믿음’이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에 대한 예로는 “엄마가 더 인생을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걸 안다는 이해심 때문에, 더 엄마를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사례11), “아무리 힘든 일 있어도 엄마가 옆에 계시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엄마한테 말만해도 풀리고, 엄마가 옆에 계시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요.”(사례17) 등의 진술을 들 수 있고, ‘혈연으로서 신뢰와 믿음’에 대한 예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싫어하고 정말 불구의 몸이 됐을 때도 제 옆에 있어줄 사람은 엄마라고 생각을 해요.”(사례11), “친구는 아무리 좋아도 남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커서 보니 식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엄마는 항상 변함 없이 저한테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사례17) 등의 진술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안정 애착된 청소년들은 가족, 그 중에서도 부모를 주된 애착 인물로 느끼고 있으며, 타인과는 달리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든 내 편이 되어주고, 옆에 있으면 의지가 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안정 애착 집단의 청소년들이 부모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안전 기반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안전 기반으로서 부모를 활용할 수 있음을 부모에 대한 확고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불안정 애착. 불안정 애착 집단의 청소년들은 청소년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단절’이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와의 관계 범주에서는 전형적인 구성 요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 애착 집단의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한다. 예로는, “옛날에는 참 엄마랑 많이 이야기했었는데요. 확실히 엄마가 집에 잘 들어오지를 않으니까요 할 이야기만 하게 되요. 돈 달라거나 그런 이야기만...”(사례20), “제가 크다보니까 이야기도 잘 안하구, 사춘기 지나오면서 싸움도 많이 하구... 서먹서먹해요. 전보다는 이야기하는 게 많이 줄었죠.”(사례22) 등의 진술이 여기에 속한다.

주된 애착 인물로는 ‘친구’가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났으며, 주된 애착 인물과의 관계로는 ‘이해 및 수용’이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났다. 이들은 “친구한테는 고민 같은 걸 다 털어놓구요. 그리고 같이 있으면 되게 편한 거.... 친구들한테는요 친구 관계 이런 거를 더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있구요.”(사례 9), “친구는 내가 이런 게 있어도 개랑 똑같으니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이해해주시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사례19) 라고 진술하였다. 불안정 애착 집단의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 채,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해주는 친구를 주된 애착 인물로 느끼고 있었다.

혼합 애착. 청소년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아동기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무척 신경을 많이 써주시지만, 너무 많은 간섭과 통제를 하신다고

이야기했다. 청소년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관심 및 민감성’과 ‘과잉 통제 및 요구’는 안정 애착 집단에서도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난 구성 요소였다. 그러나, 안정 애착된 청소년들은 어머니의 관심과 지나친 통제도 있지만, 어머니가 자신의 성장을 인정하며 아동기와는 다르게 대해주신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혼합 애착 집단의 청소년들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이 귀찮고 짜증스럽다고 이야기하여 안정 애착된 청소년들과 차이점을 보였다. 예로는, “엄마가 물어보시면 짜증내고 괜히 구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는 제가 왜 짜증을 내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사례12),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부모님이 좀 짜증스럽게 느껴졌어요. 저는 공부하기 싫고 놀고 싶은데, 계속 공부하라고 하고 정말 짜증나죠.”(사례14)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두 집단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구성 요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된 애착 인물로는 ‘친구’가 전형적으로 나타났고, 주된 애착 인물과의 관계로는 ‘접근 가능성’과 ‘이해 및 수용’이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항상 같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친구를 주된 애착 인물로 여기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따져보면 그 친구랑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말도 가장 많이 하고, 엄마한테 이야기하기 보다는 그 친구한테 말하는 게 더 편해요.”(사례12), “같이 지내고 같이 다니니까 자기네들이 한 일이 뭔 일인 줄 알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말할 수 없는 걸 친구들한테는 스스럼없이 털어놓을 수가 있죠. 지금은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사례14) 등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혼합 애착 집단의 청소년들은 여전히 심리적인 근접성 뿐 아니라 신체적인 근접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관계적 욕구를 친구를 통해 추구하

고 있었다.

내적 실행 모델 유형별 부모와의 갈등 · 대인관계 · 스트레스

세 가지의 하위 집단별 부모와의 갈등, 대인관계,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교차 분석 결과는 표 2-3과 같고, 각 하위 집단에 따른 부모와의 갈등, 대인관계,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전형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와의 갈등

안정 애착. 안정 애착된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갈등 영역 중 ‘자신과 부모의 욕구 충족 및 타협’이 6사례 모두에서 나타나 일반적인 빈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 애착 집단의 청소년들은 부모와 서로 다른 욕구를 절충, 타협하여 맞춰나가거나 자연스럽게 부모와의 갈등이 해결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마랑 갈등이 생기고 나서는 요.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싶을 땐 편지를 써요. 하지만 항상 편지를 쓸 수는 없잖아요. 조그만 일이 있을 때는 하루는 가요. 그리고 다음 날 되면 다 깨먹구, 엄마랑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구...”(사례17), “요즘은 별로 부모님하고 갈등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도 제 의견을 따라주시고 믿어주시구요. 저도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서 맞추니까...”(사례21) 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부모와의 갈등 해결 후 ‘자기와 부모에 대한 평가’ 범주에서는 ‘긍정적인 자기 평가’와 ‘긍정적인 부모 평가’가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났다. 예로는,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봤자 손해나는 건 나쁜인데, 엄마한테 풀어놓고 상담 같은 거 하면서 어머니가 풀어주시니까 감정을 그렇게 펼쳐놓을 수 있다는 건 좋은 거 같아요.”(사례6), “제

표 2-3. 내적 실행 모델별 부모와의 갈등 · 대인관계 · 스트레스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영 역	범주별 구성요소	내적 실행 모델별 응답 유형		
		안정 애착	불안정 애착	혼합 애착
부모와의 갈등	1. 갈등 해결 방식			
	1) 일방적 갈등 해결	.	.	전형적
	2) 자신과 부모의 욕구 충족 및 타협	일반적	.	.
	3) 갈등의 회피	.	전형적	변동적
	4) 자신의 욕구를 주장	.	.	전형적
	2. 갈등 해결 후 자기와 부모에 대한 평가			
	1) 긍정적 자기 평가	전형적	변동적	변동적
	2) 부정적 자기 평가	.	변동적	전형적
	3) 긍정적 부모 평가	전형적	.	.
	4) 부정적 부모 평가	.	변동적	변동적
대인관계	1. 긍정적 대인관계			
	1) 원만한 대인관계	전형적	.	변동적
	2. 부정적 대인관계			
	1) 소극적 대인관계	.	.	전형적
	2) 피상적 대인관계	.	전형적	변동적
스트레스	1. 행동 전략			
	1) 애착 체계의 활성화	.	변동적	변동적
	2) 애착 체계의 비활성화	변동적	변동적	전형적
	3) 다양한 행동 전략	전형적	.	.
	2. 행동 전략에 따른 결과			
	1) 안정성 획득	전형적	변동적	변동적
	2) 안정성을 획득하지 못함	.	전형적	전형적

의견을 따라주시고 믿어주시는 부모님들이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구, 제가 하는 일에 막히는 게 없으니까요. 만족스럽기도 하구 그래요.”(사례21) 등 의 진술을 들 수 있다.

안정 애착 집단의 청소년들은 부모님과의 갈등을 적절히 해결하고 있거나, 많은 갈등을 겪고 있

지 않았다. 또한, 그러한 해결 방식을 통해 자신과 부모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거나 서로를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었다.

불안정 애착. 불안정 애착 집단의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갈등 영역에서 ‘갈등 해결 방식’으로는

‘갈등의 회피’가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나, 부모와의 갈등에서 야기되는 부정적인 정서와 사고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는, “부모님이랑 갈등이 생기면 대화를 하고 싶은데요. 그냥 친구들 만나요. 부모님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서요.”(사례15), “엄마랑 안 좋으면 오히려 힘들구 그러니까 아예 늦게까지 공부하고 들어온다거나 방에서 잘 안나오거나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냥 지나가게 되니까... 그냥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사례20) 등의 진술을 들 수 있다. 또한, 갈등 해결 후 자신과 부모에 대한 평가 범주 중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난 구성요소는 없었지만, 갈등의 회피로 인한 결과에 대해 대부분 불만족스러움을 표현하였다.

혼합 애착. 혼합 애착 집단의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갈등 영역 중 ‘갈등 해결 방식’의 범주에서는 ‘일방적 갈등 해결’과 ‘자신의 욕구를 주장’이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났으며, ‘갈등 해결 후 자기와 부모에 대한 평가’의 범주에서는 ‘부정적 자기 평가’가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집단의 청소년들은 갈등이 생기면 부모님께 말 대꾸를 하거나 부모님이 다가와서 기분을 풀어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욕구를 주장하거나 부모님의 욕구에 순응하는 등의 비상호적인 갈등 해결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예로는, “제가 기분이 상하면 그냥 말을 많이 안해요. 그런데, 엄마가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있다가 다시 처음처럼 대해주시니까 제가 더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사례1), “엄마가 풀어줄 때까지 빼져 있어요.”(사례4) 등의 진술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으며, “저는 마음이 상하면 그런 거를 담고 있는데, 엄마는 그 때마다 풀고 막 그러시니까 제가 먼저 다가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

데... 제가 말도 안하고 그런 성격이 되게 싫어요.”(사례1), “성격이 소심해서... 제 성격이 이상해요. 절대로 제가 먼저 안 풀어요. 소심한 성격을 고치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되니까요. 그러니까 좀 짜증나고 그래요.”(사례4) 등을 이야기하였다.

대인관계

안정 애착.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긍정적인 대인관계’ 범주에 속하는 ‘원만한 대인관계’가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나, 안정 애착된 청소년들은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고 붙임성이 있으며 주변 친구들이 힘들면 도와주고 친구들도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예로는, “제가 아무 친구들과도 금방 친해지구요. 인사도 잘하구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잘 도와주기도 하구...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 추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사례16), “일단 활발하구요.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몇 마디만 해도 금방 친해져요. 애들한테도 붙임성 좋다는 소리 듣고... 그래서 주위에 친구도 많아요.”(사례17) 등의 진술을 들 수 있다.

불안정 애착.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부정적인 대인관계’ 범주 중 ‘피상적인 대인관계’가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났다. 불안정 애착 집단의 청소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자신을 드러내거나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으로부터 거리감을 두는 피상적인 대인관계를 맺고 있었다. 예로는, “제가 좀 너무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런 모습이 애들한테는 우습게 생각될 것 같아요. 애들은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를 저는 되게 깊게 생각을 하거든요.”(사례15), “딱히 사람들한테 미움은 받지 않고, 사람들과 고루 잘 지내요. 그런데... 뭐

깊게 깊이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랄까 제가 이젠 당당하고 그러지 못하니까... 이야기 할 때도 내면적인 그런 것들은 말도 잘 못하고... 보통 그런 게 제 단점이 되니까요.”(사례22) 등의 진술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불안정 애착 집단의 청소년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타인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잘 알지 못한 채 지내고 있는 것이 특징적으로 드러났다.

혼합 애착.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부정적인 대인 관계’ 범주 중 ‘소극적 대인관계’가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의 수용에 민감하여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혼합 애착 집단 청소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 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제가 사람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사례1), “한번 말을 걸어 주면 되게 말을 잘하는데, 새로 본 친구한테는 먼저 말을 못해요. 표정관리도 못하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먼저 다가가지를 못해요”(사례 8) 등을 언급하였다.

스트레스

안정 애착. 스트레스 영역에서는 ‘행동 전략’으로는 ‘다양한 행동전략’이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났으며, ‘행동 전략에 따른 결과’로는 ‘안정성 획득’이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안정 애착 집단의 청소년들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는 상황에 따른 다양한 행동 전략으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면, 그냥...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방으로 들어오거나 노래 같은 거 부르고, 진짜 짜증나고 화나고 열 받으면 어머니한테 말해요. 그

러면 후련해져요”(사례6), “급하고 짜증나고 그랬던 게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공부를 만족할 만큼 하고 나면 풀어지고 뿌듯해서 잠이 잘 오죠. 주변 사람들한테는 항상 감사해요.”(사례17) 등의 언급을 하였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행동 전략으로 자신이 힘들 때 잘 대처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주변 애착 인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고 안정감을 되찾고 있었다.

불안정 애착. 스트레스 영역에서 ‘행동 전략’ 범주 중 전형적인 구성 요소는 나타나지 않았고, ‘행동 전략에 따른 결과’ 범주에서는 ‘안정감을 획득하지 못함’이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났다. 비효율적인 행동전략으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지 못한다며, “기분 나쁘거나 짜증이 나면 눈물이 막 나오. 서럽고... 내가 왜 이래야 되나...”(사례2), “기분 나빠서 힘들 땐,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보면 정말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놀다 보면요 순간은 잊어먹잖아요. 그렇게 순간은 풀리는데 조금 있으면 또 걱정되고 그래요.”(사례20) 등을 언급하였다.

혼합 애착. 스트레스 영역에서는 ‘행동 전략’으로 ‘애착 체계의 비활성화’가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났고, ‘행동전략에 따른 결과’로는 ‘안정성을 획득하지 못함’이 전형적인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의 수용에 민감한 혼합 애착 집단의 청소년들은 높은 대인관계적 욕구만큼이나 대인 관계에 높은 불안감을 지니고 있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로 혼자 삽히거나 기분을 전환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안정감을 획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예로는, “노래 같은 것도 듣고 컴퓨터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스트레스 받으면 잊으려고 이것저것 많이 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허무

하다구 그럴까...”(사례1), “폭식하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명하니 가만이 있거나... 가만있으면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편하죠. 가끔씩 혼자서 해야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요. 그게 자신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사례14) 등을 언급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애착 관련 경험의 양상을 알아보고, 그들의 애착 관련 내적 실행 모델에 따른 애착 관련 경험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의 애착 관련 내적 실행 모델은 청소년에게 가장 의미있는 타인인 부모에 대한 표상과 자기 표상의 조합에 따라 그 유형이 분류되었다. 그 결과, ‘부모 표상’ 범주에서는 부모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방어하거나 부모에게 양가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의존적인 관계에서 애착 인물에 대한 부정적 느낌에 대한 인식이 쉽지 않음을 언급했던 Allen과 Land (1999)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기 표상은 부모에 대한 지각과 연관됨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에 대한 애착을 고려할 때 자신과 타인에 대한 견해는 독립적일 수 없다는 Vivona(2000)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자기 표상’ 형성은 부모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안정 애착된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설사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의 상황과 결점에 대해 이해와 수용을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부모님의

상황과 결점을 자기 표상과 연관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 애착된 개인은 유용하다고 지각되는 부모 모델과 유능하다고 지각되는 자기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부모가 유용하지 못하거나 결점을 지니고 있다면 불안정한 부모의 실행 모델을 안정적인 자기의 실행모델과 분리시킬 수 있다고 한 Main과 Goldwyn(1993)의 견해와 일치하였다.

둘째, 내적 실행 모델 유형의 차이는 아동기와 청소년기 애착 인물과의 관계에서의 차이점을 반영하고 있었다. 안정 애착 집단의 아동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집단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합의성’이 과반수 이상의 사례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로의 다른 욕구를 맞추는 ‘목표 수정적인 파트너십’은 아동기의 애착의 안정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안정 애착 집단의 청소년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관심 및 민감성’과 ‘자녀의 성장을 인정’이 나타나,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자녀의 성장을 인정하는 부모님의 양육 태도는 안정 애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은 부모를 안정 기저로 활용할 뿐 아니라 독립적인 욕구가 커지는 시기이므로, 관심과 함께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을 인정해주는 부모의 양육 태도는 청소년들의 안정감 획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청소년 상담에서 상담 관계 형성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셋째, 부모와의 갈등 해결 방식에서 안정 애착 집단은 부모와 자신의 욕구를 적절히 타협하며, 이러한 갈등 해결 후 자신과 부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이는 안정 애착된 청소년들은 부모와 갈등을 타협하는데 있어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동반한 균형잡힌 주장성과 부모에 대한 낮은 수준의 역기능적 분노를 특징으로 지닌 반면, 불안정 애착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갈등에서

역기능적인 분노를 느끼며 회피적인 대처를 한다는 Kobak 등(199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 애착아는 불안정 애착아보다 부정적인 정서와 그 결과에 대해 더 잘 이해한다는 Laible 과 Thompson(1998)의 연구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즉, 불안정 애착 집단의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정서 혹은 사고를 수용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혼합 애착 집단의 청소년들은 갈등 해결 방식에 있어서 자신의 욕구를 지나치게 주장하거나 부모님의 욕구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는 혼합 애착 집단의 청소년들은 애착 인물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욕구를 맞추지 못하고, 일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이처럼 부모-자녀간의 상호 관계에서 욕구를 조율하지 못함은 청소년들의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에 있어 문제를 야기시키며, 그 결과 관계적 욕구에 집착하거나 애착 인물로부터 독립하지 못함으로 생겨나는 정서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대인 관계 영역에서는 자기와 타인에 대해 통합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안정 애착 집단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자기와 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지닌 불안정 애착 집단은 피상적인 대인관계를, 자기와 부모 표상이 혼재되어 있는 혼합 애착 집단은 소극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의 형태에 자기와 부모에 대한 내적 실행 모델이 반영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정서적 안정감을 획득하기 위해 애착 체계가 활성화되므로 내적 실행 모델이 작동된다고 볼 수 있는데 안정 애착 집단의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다양한 행동전략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있었다. 반면

불안정 애착 집단과 혼합 애착 집단의 청소년들은 효율적이지 못한 대처 방식으로 인해 안정감을 획득하고 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한 행동 전략 사용에 만성화되지 않고 상황에 따른 다양한 행동 전략의 사용이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감 획득을 위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안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부모의 보고와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아동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애착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지각이 실제 부모의 행동 및 상호작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지각과 부모 행동간의 일치성의 여부를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기 또래 애착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주된 애착 인물을 밝힘으로서 또래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는 있었으나, 또래와의 애착이 청소년기 부모와의 애착과 대인 관계 형성에 어떤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또래에 대한 애착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소년기 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개인의 애착 양식은 그 개인이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기본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애착 양식에 대한 파악은 청소년들을 상담함에 있어서 상담 관계를 이해하고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청소년기 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장미자 (1998). 애착의 세대간 전이.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dams, G., & Gullotta, T. (1989). *Adolescent life experiences*. Belmont, CA: Wadsworth.

Ainsworth, M. D., Blehar, M. C., & Waters, E.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Allen, J. P., & Hauser, S. T. (1996). Autonomy and relatedness in adolescent-family interactions as predictors of young adults' states of mind regarding attachment. *Developmental and Psychopathology*, 8, 793-809.

Allen, J. P., Kuperminc, G. P., & Moore, C. M. (1997). Developmental approaches to understanding adolescent deviance. In S. S. Luther, J. A., Burack, D. Cicchetti, & J. Weisz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s on risk and disorder* (pp.548-567).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Allen, J. P., & Land, D. (1999). Attachment in adolescence.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 (pp. 319-335). New York: Guilford Press.

Becker-Stoll, F., & Fremmer-Bomik, E. (1997, April). *Adolescent-mother interaction and attachment: A longitudinal study*.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Washington, DC.

Bowlby, J. (1958).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Bowlby, J. (1988). *A secure base*. New York: Basic Book

Brown, S. L., & Wright, J. (2001). Attachment theory in adolescence and its relevance to developmental psychology.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8, 15-32.

Collins, N. L., & Read, S. J. (1994).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working models. In K. Bartholomew & K. Perlman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pp. 53-90). London: Jessica Kingsley.

Dolan, R. T., Arnkoff, D. B., & Glass, C. R. (1993). Client attachment style and the psychotherapist's interpersonal stance. *Psychotherapy*, 30, 408-412.

Elliott, R., & James, E. (1989). Varieties of client experience in psychotherapy: An analysis of the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9, 443-467.

Farber, B. A., Lippert, R. A., & Nevas, D. B. (1995). The therapist as attachment figure. *Psychotherapy*, 32, 204-212.

Feeney, J. A., & Noller, P. (1996). *Adult Attachment*. London: Sage.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4), 517-572.

Kobak, R., Cole, H., Ferenz-Gilles, R., & Fleming, W. S. (1993). Attachment and Emotion Regulation during Mother-Teen Problems Solving: A Control Theory Analysis. *Child Development*, 64, 231-245.

Laible, D. J., & Thompson, R. A. (1998). Attachment and emotional understanding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 Psychology*, 34, 1038-1045.

Lopez, F. G., & Brennan, K. A. (2000). Dynamic processes underlying adult attachment organization: Toward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e healthy and effective sel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283-300.

Main, M., & Goldwyn, R. (1993). *Adult Attachment Classification System*.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Pistole, M. C. (1999). Caregiving in attachment relationships: A perspective for counselor. *Journal of Counseling Development*, 77, 437-446.

Sperling, M. B., & Lyons, L. S. (1994).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and psychotherapeutic change. In Sperling, M. B. & Berman, W. H. (Eds.), *Attachment in adult: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pp. 331-347), Guilford: New York.

Vivona, J. M. (2000). Parental attachment styles of late adolescence: Quality of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consequences for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3), 316-329.

원고접수일 : 2004. 2. 28
수정원고접수일 : 2004. 4. 22
게재결정일 : 2004. 5. 8



A Study of Qualitative Analysis on the Attachment in Adolescence

Si-Eun Lee

Jae-Chang Lee

Hong-i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ttachment relevant experiences of high school students, and classify sub-groups to compare within these sub-groups. For the data collection, thirty cases of high school students were interviewed about attachment relevant experiences. In all, twenty-four cases of high school students are analyzed through the discussion and consensual process by primary team of five judges. As a result, adolescents' attachment relevant internal working model was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by compounding of parent representation and self representation; secure attachment group of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about parent and self, unsecure attachment group of negative or idealized representation about parent and self, and mixing attachment group of mixing representation about parent and self. In secure attachment group the process of separation - individuation from parent was formed naturally, while adolescents in mixing attachment group had difficulty in separation - individuation from parent. And, in unsecure attachment group relationship with parent (especially mother) was cut-off. Also, in secure attachment group, adolescents were well attuned to parent who had different needs with self, formed harmoniou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uld regulate affect in time of distress. In unsecure attachment group, adolescents avoided conflict with parent, formed superficial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uldn't regulate affect under the distress. In mixing attachment group, adolescents couldn't keep the balance of needs between parent and self, formed pass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couldn't regulate affect under the distres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counselor significant information of understanding adolescents and forming therapeutic relationship and intervention.

Key Words : adolescent, attachment, internal working model, Consensual Quality Research